

산업(섬유)정보화 촉진 세미나 공동 개최

국내 산업전반의 정보화촉진을 통한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고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 정보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협회는 지

이날 회의에서는 멀티미디어협의회 사업추진 현황 보고와 멀티미디어 산업동향보고서 발간 추진 및 하반기 멀티미디어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계획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난 6월 4일 섬유센터 대회의실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제1차 산업(섬유산업부문)정보화촉진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였다.

섬유산업 관계자 및 정보통신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영철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섬유산업 QR(Quick Response) 구축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비롯 박동준 한국유통정보센터 부장의 의류 KAN코드의 활용방안, 김규수 협회 EC협의회 운영위원의 섬유산업의 CALS/EC적용전략과 협회 최성규 본부장의 정보시스템 2000년 연도표기 문제의 본질 및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멀티미디어협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우리협회의 멀티미디어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 타워호텔에서 김건중 위원장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멀티미디어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인터넷팩스서비스 활성화 방안 수립 전문가회의

최근 미국 Faxway, Faxline, Faxesav 등 인터넷망을 이용한 팩스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무역업체를 중심으로 인터넷팩스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인터넷팩스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및 활용방안의 수립이 모색되지 않아 국내 인터넷팩스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국내 인프라를 이용한 인터넷팩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난 6월 26일 타워호텔에서 송관호 한국전산원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차 전문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국제·시의 팩스 전송구현으로 국내업체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인터넷팩스서비스 구현으로 관련 정보통신기기 및 응용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사업자, 개발업체, 마케팅업체의 대표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인터넷팩스서비스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과 운영하고 인터넷/PC통신사업위원회와 연계하여 대정부 건의를 할 예정이다.

2000년 문제 인식 및 대응 설문조사 실시

‘2000년 연도표기문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경영층의 인식부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우리협회가 공공 63개기관, 민간 94개업체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동 조사는 그 대상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기관 등과 은행, 보험, 백화점, 건설, 화학, 철강, 기타 제조업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성격을 띄고 있다. 분석결과 경영·관리자층의 인식 수준이 크게 부족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나 C.I.O(33.7%), 전산실무자(30.5%)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여 실제 의사결정층의 인식 부족이 2000년문제 대응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민간부문 경영자층(67%)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관리자층(77.7%)의 인식부족이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응” 관련 설문에서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이라는 응답이 52.8%로 나타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자체해결(내부인력) 43.3%, 전문업체용역해결 26.1%, 전면 재구축방법도 15.3%에 달했다. 자체해결은 회사(기관)이 자체보유 실무자에 의한 해결방식으로서 사실상 전문 HW, SW업체들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계획(책정)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기관의 과반수(58%)가 '97년도 예

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2000년 문제의 대응시기에 대한 설문에서 현재 실시중 25개(15.9%), '97년 하반기중 45개(28.6%)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협회의 전문가 그룹인 “2000년 대책위원회”는 현재처럼 조속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국가 전반에 큰 비용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협회는 지난 5월 9일 1차세미나에 이어 6월 24일 제2차세미나 한국과총회관에서 가졌다.

인터넷전문가과정 제4차회의 개최

우리협회 인터넷인증시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타워호텔에서 인터넷인증시험 전문가과정 협의를 위한 제4차회의를 가졌다.

우광호 한경PC라인 회장의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합격점수와 관련하여 1차시험은 변경전의 8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변경전에 1차시험 합격자에게 2차시험 응시기회 1회만 부여했던 것을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시험 불합격자나 미응시자에게 차기 2차시험 응시기회를 1회 더 부여하기로 조정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볼마크 제정

심볼마크는 그 조직의 상징이며, 고유이념을 담고 있다. 정보와 통신 그리고 윤리의 핵심주체는 사람이며, 사랑으로 따뜻한 정보사회를 꽃피우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녹색은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청색은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이올러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할 우리가족들은 심볼마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